

「文繼朴 木活字」考

～ 嶺南地方 活字考 其一 ～

尹 炳 泰

차 례

- | | |
|-------------------|----------------|
| I. 머리에 | 1. 書體, 字本과 代表字 |
| II. 이 活字의 印本들 | 2. 活字의 材料 |
| 1. 首陽世稿 | 3. 活字의 造成과 使用 |
| 2. 虛庵遺藁 | 4. 字名에 대하여 |
| III. 이 活字에 관한 問題들 | IV. 끝으로 |

I. 머 리 에

이 글은 慶北을 中心으로한 嶺南地方에서 金屬活字나 木活字, 그리고 陶磁活字나 그밖의 活字로 書籍을 印出한 事實을 究明하려는 一連의 研究에서 처음으로 發表하는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高麗時代부터 活字로 책을 찍어낸 일이 있는 것은 先學의 研究에서 일찍부터 밝혀진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活字印書의 技術이 朝鮮朝까지 繼承되어온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와 같은 活字印書의 일은 官이 中心이 되어 中央에서만 行하여진 것이 아니고, 때로는 地方官에서도 印書行爲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地方에있는 寺刹이나 書院 그리고 民間의 團體나 個人的 힘으로도 이루어진 事實은 《實錄》이나 그 밖의 여러 文獻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알 수 있거니와 그 實物도 많이 남아 있어, 그 事實을 確認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地方活字 印出本으로서 알려진 現存實物中 가장 오랜 책을 하나

2 도서관학 논집

들자면 《白雲和尚抄錄直指心體要節》 즉 略하여 「直指心經」이라 부르는 책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淸州牧外의 興德寺에서 活字로 찍어 내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 사소한 한 例로 보인 以後에도 우리나라 地方에서는 活字로 여러가지 책을 印出하였으니, 北으로는 關西·關北 그리고 海西地方에서, 南으로는 畿湖와 嶺南에 이르기까지 많은 活字印書가 이루어졌다.

그 中에서도 慶尙北道를 中心으로한 嶺南에서 여러가지 活字로 많은 책을 찍은 일이 있는 것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 있다. 이 研究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아니한 嶺南地方에서 興盛하였던 活字印書의 事實들을 究明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嶺南地方에서 活字로 책을 찍어내었던 일은 《實錄》과 같은 中央官署의 記錄에는 전혀 記錄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木板 즉 板木으로 책을 刊行한 事實만이 《實錄》에 여러번 밝혀지고 있다. 活字로서 책을 찍은 일은 그 實物이 남아있거나, 個人的 記錄物 속에서 잠깐 言及한 것에서 알려진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寓目한 實物을 통하여 알게된 嶺南地方 印出 活字本 中에서 文繼朴의 活字로 찍은 책을 보고, 이와 關聯되는 活字印出의 事實을 몇가지 밝혀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文繼朴의 木活字에 대하여는 先學에 의하여 全혀 言及된 바 없으며, 다만 筆者의 前著인 《朝鮮朝 活字考：大型活字》에서 1行정도로 言及한데 지나지 않고 있다.⁽¹⁾ 따라서 이 글은 文繼朴 木活字에 대하여 처음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글이 될 것이다.

이 活字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는, 우선 이 活字로 찍은 책을 살펴보아야만 할것 같다.

II. 이 活字의 印本

이 文繼朴 木活字로 찍은 책은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首陽世稿》이며,

(1) 尹炳泰, 朝鮮朝活字考：大型活字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76), p.76.

다른 한가지는 《虛庵遺藁》이다. 이 두가지 책을 文繼朴木活字로 찍은 것을 알게된 것은, 故 六堂 崔南善의 藏本을 整理하든중 보게된 《首陽世稿》의 出版事項을 알고자 하든데서 비롯하였다.

우선 이 두가지 印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首陽世稿

이 《首陽世稿》는 前述한 바와 같이 故 六堂 崔南善의 舊藏本으로, 지금은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圖書室 六堂文庫本으로 所藏되어 있는 책이다. 請求記號는 六古 D2-A38-2 로서 지금은 卷之三과 四 그리고 <附>가 合綴된 1冊만이 남아 있다.

이 책은 모두가 4卷 附 合 2冊이었던 모양 같다. 線裝 方冊으로된 이 책의 크기는 세로가 36cm 가로 즉 폭이 22.5cm 로 되어 있다. 保存狀態가 매우 나빠, 卷之四의 第 1張 앞面에 의하여 그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24.1×16.3cm. 有界. 10行20字. 版心：上下白口. 上下 內向 大四瓣花紋魚尾(上 單線, 單絲, 下 雙線)「首陽世稿 松齋」(張次)

와 같이 되어 있다. 版心題 아래에 있는 「松齋」라는 表示는 그 卷의 各張에 收錄한 著作의 著者를 表示한 것이니, 같은 著者表示는 卷之四의 卷首題와 卷次가 있는 다음 行에도 꼭 같이 「松齋」라고 表示되어 있다. 그리고 著作의 本文이 始作하기 前에, 「松齋」表示 다음行부터 한자씩 내려서 松齋의 略傳이 실려 있다.

이 보다 앞서 있는 卷之三의 첫張은 卷首題의 「首陽」 두 글자와 著者表示의 글자들이 鼠蝕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끝이여 있는 略傳과 版心題 아래의 表示에 따르면 幸村의 著作이 卷之三에 收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卷之一과 卷之二가 合綴된 第 1冊이 缺本임으로, 그 體裁와 內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없다. 또 이 《首陽世稿》는 《韓國古書綜合

4 도서관학 논집

目錄》⁽²⁾ 이나 《朝鮮典籍誌》⁽³⁾의 記錄을 追跡하여 보아도 他處에 그 所藏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찾아볼 수도 없다. 그리고 남아 있는 零本 1冊에는 이 《首陽世稿》의 印出年度등 그 밖의 出版事項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表示도 없다. 따라서 이 책의 出版事項과 內容을 알아 내기 위하여는 다음 2에서 다음 《虛庵遺藁》의 卷末에 있는 “天啓元年二月日”字의 鄭造의 跋文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 跋의 內容에 보면,

…適按嶺南 先印世稿 繼印是書

타 있는 것으로 보아, 鄭造가 嶺南의 所任을 맡아와서 먼저 이 世稿를 찍고 이어서 《虛庵遺藁》를 찍었음을 알 수가 있다. 《海州鄭氏族譜》에 따르면⁽⁴⁾ 鄭造가 嶺伯이 된 것은 光海 12年 庚申(1620) 이므로, 《首陽世稿》를 찍었을 때는 光海 12年 부터 《虛庵遺稿》의 跋을 쓴 天啓 2年 즉 光海 14年(1622)以前으로 생각할 수 있다. 《首陽世稿》卷之一과 二의 內容은 存本을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지만, 鄭造가 그의 跋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그의 先稿의 一部인 것 같다. 卷之三·四의 內容을 미루어 보아, 卷之一·二의 內容은 鄭造의 高祖父와 曾祖父의 遺稿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參考로 이 두사람에 대하여 《海州鄭氏族譜》의 記錄을 찾아본다면 아래와 같다.⁽⁵⁾

高祖父인 希儉은 字가 祖禹, 號가 桂陽·漁隱이며, 成宗 3年壬辰(1472) 11月 11일에 나서 燕山 4年戊午(1498)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中宗 39年甲辰(1544)에 73歲로 돌아간 분으로 遺稿도 있다 한다.

曾祖父인 彥愷은 字가 謹夫, 號가 孤竹齋로, 燕山 4年戊午(1498)에 나서 中宗 11年丙子(1516)에 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中宗 28年癸巳(1533)에 文科에 합격하여 벼슬이 戶曹參判에 이르렀고 明宗 11年丙辰(1556)에 돌아간 분이다.

위 두분의 遺稿가 《首陽世稿》에 收錄되었다는 것은 推測에 의한 것이지만

(2)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3) 尹炳泰 編, 朝鮮典籍誌, 組版中 原稿.

(4) 海州鄭氏族譜, 卷之二 第 30張, 國立中央圖書館藏本 古朝鮮 58-가 24-5.

(5) 上揭書, 同面, 第 1段.

6 도서관학 논집

그 밖의 사람의 遺稿는 前述한 것과 같이 遺稿가 남아 있어 알 수가 있다.

《首陽世稿》卷之三에 그 著作이 실려있는 幸村은 鄭造의 祖父인 惕이다. 《首陽世稿》卷之三의 卷首에 있는 略傳과 《海州鄭氏族譜》에 있는 記錄에 따르면⁽⁶⁾ 惕의 字는 君吉이며, 號는 幸村 혹은 杳村이고, 中宗12年丁丑(1517) 9月 2日에 나서, 中宗 38年癸卯(1543)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明宗 4年己酉(1549)에 式年文科試에 合格한 다음 벼슬이 承政院 右承旨에 이르러, 宣祖 29年丙申(1596) 8月 13日에 80歲로 돌아간 분이다.

《首陽世稿》卷之四是 鄭造의 父親인 松齋 文英의 遺稿와, <附>로 松齋의 從弟인 農圃 文孚의 遺稿인 <農圃雜遺>가 收錄되어 있다. 먼저 松齋에 대하여 《首陽世稿》卷之四의 卷首에 있는 略傳과 《海州鄭氏族譜》에 있는 記錄⁽⁷⁾을 보면, 字는 子發이요, 中宗 30年乙未(1535) 3月 20日에 나서 宣祖 20年丁亥(1587) 3月 23日에 돌아간 분으로 文集이 남아 있다고 한다.

農圃 鄭文孚는 너무나 알려진 人物이나, 그의 글이 生存時에 《首陽世稿》속에 包含하여 刊行된 것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것 같다.

農圃는 《海州鄭氏族譜》에 따르면 字가 子虛로, 明宗 20年 乙丑(1565) 2月 19日에 나서, 宣祖 18年乙酉(1585)에 生員과 進士의 兩試에 合格하였으며, 宣祖 21年戊子(1588)에 文科에 合格하였고, 壬辰戰時에는 北評事로서 戰功을 세워 宣武原從功臣의 一等으로 記錄되었다. 光海 5年 癸丑(1612)의 癘母時에는 이를 反對하였고, 仁祖 2年甲子(1624) 11月 19日에 60歲에 돌아간 분이다.

이상의 여러 著者들을 보아 알 수 있드시, 鄭造는 그의 父·祖의 遺稿와 從祖의 글을 活字로 刊行하였던 것이다. 같은 活字로 적은 책에는 《虛庵遺藁》가 있다.

2. 虛庵遺藁

이 책은 《韓國古書綜合目錄》에 따르면, 서울大學校圖書館 일사文庫藏本과

(6) 上揭書, 同面, 第 3段.

(7) 上揭書, 同面, 第 4段.

清芬室藏本이 있음이 알려져있다. 實査한 책은 일사文庫本인바, 모두 3卷 1冊으로 되어있는 線裝方冊이며,⁽⁸⁾ 그 크기는 세로가 32.4cm 가로(폭)가 19.2cm 이다. 卷之一 第 1張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 23.8×16.4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 內向 太四瓣花紋魚尾 (單線, 單絲) 「虛庵集卷一」(張次)

로 되어있으니, 前述한 《首陽世稿》의 版式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卷首에 〈虛庵遺稿序〉 3張이 있다. 이 序의 版心題는 「虛庵遺稿」로 끝字인 “稿”가 卷首題와 다르다. 이 序의 末尾에는

…皇明正德六年十一月日舊義靖國功臣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青海君李堦序

라고 序를 쓴 사람의 記錄이 있다.

이 序가 있음을 보아 《虛庵遺藁》는 中宗 6年(1511)에 江原道觀察使인 李堦가 虛庵의 親舊인 東原守 金士衡에게 刊行하게 한 책을 底本으로 하여 印出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李堦의 序가 끝난 다음에 곧이어 本文의 卷之一부터 卷之三까지가 있다. 그 內容은 모두 詩이며, 卷之一은 28張·卷之二는 17張·卷之三是 21張 합하여 모두 66張이 있다. 이 本文이 끝난 다음에 鄭造가 쓴 跋題나 張次가 없는 跋文 1張이 있다.

이 跋文의 前半은 《虛庵遺藁》의 著者인 虛庵의 行跡이나 遺稿를 刊行한 經過에 대하여 쓴 것이다. 이 跋文의 內容과 1940년에 平北 定州의 虛庵祠에서 刊行한 《虛菴先生續集》⁽⁹⁾에 있는 〈行狀〉에 의하여 虛庵의 略傳을 알아 보면, 그는 諱가 希良 字가 淳夫, 號는 虛菴 또는 散隱이라고 하며, 睿宗 1年己丑(1469)에 나서, 燕山 1年乙卯(1495)에 登科하였다. 그는 戊午史禍에 連累됨을 꺼려 入山하여 行方을 감춘 분이다.

(8) 請求記號 일사古 -819, 51- J 463 h.

(9) 鄭希良, 虛菴先生遺集 (定州: 虛菴祠, 1940. 鉛印本), 續集卷之二, 高麗大學校藏本 請求記號 D1-A518.

鄭造가 이 《虛庵遺藁》를 活字로 印出한 것은 虛庵이 自己 高祖인 漁隱의 兄이라는 點과, 虛庵의 親友인 青海君 李瑪가 東原府에서 刊行한 遺集과 《續 東文選》에 실린 글들이 壬辰戰으로 因하여 없어졌는데 마침 鄭欽이라는 宗 丈집에서 遺稿를 얻어 본 까닭에 刊行하게 된 것으로 跋文에 밝혀져 있다.

이 跋文의 後半은 事實上 文繼朴 木活字의 根據文獻이라 할 수 있으니, 그 原文의 重要な 줄거리만 옮기어 보던

…適按嶺南 先印世稿 繼印是書…進士 文繼朴 余舊知也 曾解活字之法 監刻校印 終始革役…天啓元年二月日嘉善大夫 慶尚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鄭스 謹 跋

과 같다. 이 跋文에 의하여 《虛庵遺藁》를 찍기에 앞서 世稿 즉 《首陽世稿》를 찍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책을 찍는데 있어서 自己의 親舊인 文繼朴이가 알고 있는 活字印刷의 方法으로 印刷하였는데, 活字의 刻成을 監督하는 일부터 印刷 校正에 이르기까지 文繼朴이가 監董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日字와 官職에 의하여, 《虛庵遺藁》는 光海 13年 (1621) 2月頃에 慶尚道觀察營 즉 嶺營에서 책을 찍었음을 짐작케 한다. 위에 引用한 跋文에서 跋文을 쓴 사람의 이름 자리에 스表示를 한 것은 일사本의 原本에 그 활자를 지운 까닭이다. 이것은 仁祖가 反正할 때에 跋文을 쓴 鄭造는 叛逆으로 몰린 까닭에 지워버렸던 것 같다. 그러나 日字와 官職 그리고 姓에 의하여, 이 跋文을 쓴 사람은 鄭造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Ⅲ. 이 活字에 관한 問題들

以上과 같은 印本の 出現과 印本の 檢討에 따라 알려진 여러가지 事實들은 이 活字에 관한 몇가지 問題를 解決하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래에 項目을 나누어 이 問題들을 檢討하여 볼까 생각한다.

10) 韓國學大百科事典 (서울: 乙酉文化社, 1972), 3, 조선왕조역대상신·감사일람, p.96, 慶尚監司 條.

稿又以是集印出於世稿之
夫豈有輕重乎進士文繼朴
法監刻校印終始董役以光
持而然噫靡斯人誰與以成
天啓元年二月日嘉善大夫
水軍節度使巡察使鄭憲謹

圖 3. 文繼朴木活字. 印面の 實物크기(1:1)

1. 書體, 字本과 代表字

이 活字의 書體는 楷書體에 가까운 活字이다. 그 字本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大體로 乙亥字體의 訓監字를 본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同一한 글자의 모양이 서로 같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活字 특히 金屬活字의 경우와 같이 代表字를 고르기는 힘들것 같다.

2. 活字의 材料

이 活字의 材料는 印本の 字面을 比較하여 본 結果, 나무임이 틀림 없다. 鄭造가 그의 跋에서 “監刻”이라 하여 “刻”字를 쓴 것을 보아도, 나무를 彫刻하여 活字를 造成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3. 活字의 造成과 使用

이 活字를 만든 것은 鄭造의 跋文에 明記한 것과 같이 鄭造의 知舊인 進士 文繼朴의 指導 監督下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文繼朴에 대하여는 자세한 傳記資料를 찾을 수가 없다. 《實錄》에 보면 宣祖 29年丙申(1596) 8月戊申日條에 承文院 寫字官으로 있는 文繼朴이가 上疏한 일이 있는 記錄이 나온다.⁽¹¹⁾ 이때는 光海 13年(1621)에 《虛庵遺藁》를 적은 해보다 25年前의 일이므로 같은 文繼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文繼朴의 이름이 보이는 다른 文獻으로는 《昭代風謠》가 있다. 이 책 卷之一에 보면 文繼朴의 詩가 收錄되어 있다.⁽¹²⁾ 함께 가까이 羅列한 人物들로 보아 前記 《實錄》上の 文繼朴과 同一人物로 생각된다.

이 《昭代風謠》에 詩가 실린 것으로 보아 文繼朴은 詩에도 能한 中人階級の 人物이었든것 같다. 그 밖에도 그가 進士出身이므로 各種 司馬榜目類를 찾아 보았으나 나타나지 않으며, 文氏의 여러가지 族譜를 檢索하였으나 찾아

(11) 實錄, 23, p.43 上右

(12) 蔡彭胤 編, 昭代風謠 (哲宗 9(1858). 印書體字), 卷之一.

내지 못하여, 그에 대한 考究는 資料의 出現을 기다려 解決할 수 밖에 方法이 없을것 같다.

文繼朴木活字를 만들게 한 사람은 鄭造가 쓴 跋의 文脈으로 보아 鄭造로 생각된다. 文繼朴이 活字印刷에 관한 方法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自己 집안의 文蹟을 刊行하고자 觀察使로 있는 鄭造가 부탁하여 活字를 만들고 책을 찍게 한 것이라고 보는 쪽이 알맞는 말인것 같다.

이와같이 活字를 만들게 한 人物인 鄭造에 대하여는 《實錄》이나 그밖의 여러 資料에 많이 나타나므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海州鄭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字가 始之이며, 明宗 14年己未(1559) 8月 10일에 나서, 宣祖23年庚寅(1590)에 生員과 進士의 兩試에 모두 合格하였으며, 宣祖 38年乙巳(1605)에 文科에 合格한 사람이다.⁽¹³⁾ 그 후에 여러 벼슬을 지난 것은 《實錄》에도 자주 나오고 있어 알 수 있거니와, 慶尙監司가 된것은 光海 12年庚申(1620)이며, 仁祖의 反正으로 因하여 仁祖元年癸亥(1623) 3月己酉에 殺害되었던 것이다.⁽¹⁴⁾ 그의 夫人은 高千齡의 孫女이며, 墓는 京畿道 楊州 釜谷에 있다. 그가 司馬兩試에 合格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業蹟을 보아 有能한 官吏였으나 政權交替로 말미암아 犧牲된것 같다.

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한 鄭造가 豊富한 嶺南의 物量에다, 活字印書의 方法에 能한 文繼朴의 도움을 얻어 木活字를 造成한 時期는 鄭造의 赴任時期인 光海 12年庚申(1620)頃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것 같다.

이 活字를 使用하여 책을 찍은 것은 前述한 2種의 책 以外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더 있는가 없는가는 알 수 없지만, 鄭造가 殺害當한 時期에는 일단 이 活字의 使用이 中斷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鄭造가 가지고 있던 書籍과 그 밖의 財産은 死後에 官에서 沒收하였을 것이 當時의 事情이라면, 이 活字도 沒收되어 繼續 印書에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鄭造의 死後에 찍었다고 믿어지는 이 木活字의 印本을 더 調査하지 못하였으므로 斷言하기는 이르다.

(13) 註 4 同書, 同面, 第 5段.

(14) 實錄, 33, p. 509 下左.

4. 字名에 대하여

鄭造의 跋에 나타난 記錄을 보아, 이 活字를 만든데 공헌한 사람은 文繼朴이므로, 그를 記念하는 뜻에서도 이 活字의 이름을 文繼朴木活字로 命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從來의 活字命名에 있어 鑄・造成하기 시작한 해의 干支, 字本이나 그 筆書者, 혹은 初印本의 이름을 따서 命名하는 것 보다도 分明하게 밝혀진 印刷技術의 先驅者의 姓名을 붙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글 으 로

以上으로서 嶺南에서 使用한 活字의 한가지인 文繼朴木活字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活字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우선 이 活字로 찍은 印本인 《首陽世稿》와 《虛庵遺藁》의 두가지 책을 살펴보고 그 物理的的特徵과 著者들을 살펴보았다. 약간 장황한 느낌은 있으나, 著者들의 確認에서, 이 책들은 活字를 만들게 한 鄭造의 先稿였음이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農圃 鄭文孚의 글이 生時에 刊行된 일도 알게 되었다.

活字에 관한 問題들을 알아 보았는데 이 活字로 찍은 印本의 字面을 보아 乙亥字體訓監字를 본판것 같은 楷書體에 가까운 活字임과 代表字는 가릴 수 없음을 밝혔으며 이 活字를 만든 材料는 나무임을 밝혔다. 이 活字를 만들게 한 것은 當時 慶尚道觀察使로 있던 鄭造이며, 또 直接 活字를 만든 일을 監董한 것은 文繼朴인 것을 밝히고, 鄭造와 文繼朴에 관하여도 알아 보았다.

이 活字로 찍은 책은 《首陽世稿》와 《虛庵遺藁》가 있으며, 그 밖에도 鄭造의 死後에 沒收되어 繼續하여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비쳤다.

字名에 대하여는 印刷의 先驅者인 文繼朴을 記念하는 뜻에서 “文繼朴木活字”라고 부를 것을 提案하였다.

以上에서 다룬 活字는 慶北을 中心으로 하여 嶺南地方에서 使用한 수많은

活字中の 겨우 한가지 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活字가 使用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나하나 究明하여볼까 생각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活字에 관한 事實이 究明되므로서, 우리 民族의 훌륭한 文化 遺産이자, 嶺南의 자랑인 典籍文化의 참모습이 밝혀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신 恩師 손보기 博士와 鄭亨愚 教授에게 삼가 감사를 드린다. (1977. 12. 15.)

參 考 文 獻

尹炳泰, 編, 朝鮮典籍誌, 組版中原稿.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76.

尹炳泰,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鄭希良, 虛菴先生遺集, 定州: 虛菴祠, 1940. 鉛印本. 3卷2冊.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委員會, 1955~53. 影印本. 43冊.

海州鄭氏族譜, 京城: 海州鄭氏譜所, 1919. 鉛印本. 6卷·首卷 合7冊.

The Mun-Gye-Bag Wooden Type

Yun, Byeong-Tac*

[Abstracts]

This is a study of the Mun-Gye-Bag wooden type and its printed books. This study is the first part of the continued studies on the movable types which casted or carved and used at the Province of Yeongnam, and the books printed by these movable types.

In this study, two books which printed by Mun-Gye-Bag wooden type are described, at the preliminary part. These books are the *Su-yang Sye-go*(首陽世稿, collected works of the Su-yang family) and the *Heo-am Yu-go*(虛庵遺藁, collection of Heo-am).

According to the postface of the *Heo-am Yu-go* which composed by Jeong-Jo(鄭造, 1559~1623), the *Su-yang Sye-go* and *Heo-am Yu-go* was printed during the A. D. 1620~1621 at the Gyong-Sang Gam-yeong, by the direction of Jeong-Jo.

At the continued part of this study, the facts on the Mun-Gye-Bag wooden type was studied. These facts are found at the same postface by the Jeong-Jo, and the analysis of the type faces of the printed books.

The style of Mun-Gye-Bag type is similarly *Hae-seo* (righteous written) style, and feel liking the *Elhae-ja-che Hun-gam-ja*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ulhae type style wooden type carved at the *Hun-ryeon Do-gam*). The representative types of this type cannot be selected, because they are wooden types and the characters of type are carved irregularly.

These wooden types are carved at the A.D. 1620,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un-Gye-Bag(文繼朴), who was a friend of the Jeong-Jo and the expert of the printing knowledge.

Except the *Su-yan Sye-go* and *Heo-am Yu-go*, the other books which printed by this type were unfound. But, the continuous using of this type is available.

At last, this wooden type are named as the **Mun-Gye-Bag Wooden Type**, because to commemorate the supervisor of the carving and using of this type.

The effect of this study will be appeared at the end of the continued studies. These studies will clear the local types, typography and their using in the Korea.